완전한 인간이란 정말로 존재할까? 필자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성장해왔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라 하면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에 의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 과목은 철학적 인간학이고 주어진 논제를 논하기 위해선 이러한 상정은 맞지 않으니 관점을 바꿔보고자 한다.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안목으로 보기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차례로 부처, 공자 등이 떠오른다. 이러한 사람들의 기록된 행동들은 현시대를 사는 우리들 입장에서 그들을 완전한 인간으로 보이게끔 한다. 그러나 이들을 완전한 인간이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시대에서나 존재하고 있고 그들 자신의 생각에도 스스로를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생각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이들과 같다면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고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완전성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필자는 인간의 완전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완전성을 이루기 위해 칸트가 제시한 자아, 도덕 그리고 자유를 통해서 완전성을 이룰 방법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완전’은 사전적 의미로는 모두 갖추어져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신체적으로 완전함은 기준을 명확히 세울 수 없을 뿐더러 보통 인간의 완전함을 논할 때 생각되지 않는 주제이므로 배제하겠다. 모든 인간은 자유 의지를 지니는데 데카르트에 의하면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지는 한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해 신이 우리를 그의 이미지대로 창조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한계없는 의지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인데 인간은 모두 이러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완전한 인간 또한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 의지는 완전한 인간의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일 것인데 이러한 인간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은 자유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